

정부3.0 국민을 향한 즐거운 변화

(자료제공: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 ☎ 02-2100-3416)



국민을 향한 즐거운 변화

정부 3.0

국민 생활 맞춤형 서비스 정부3.0으로 국민 행복을 키워갑니다

공공장비를 적극 공개·개발하고 (투명한 정부)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하며 (유능한 정부)

국민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정부)



대학 구조개혁 추진

(자료제공: 교육부 대학평가과 ☎ 044-203-6809)

◆ 대학 구조개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에 보다 많은 정원을, 학생에게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교육을, 지역사회에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을 제공하겠습니다.

○ (배경) 저출산 및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전문대학의 학생 미충원 및 교육 부실화, 폐교 위기로 인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2023년까지 학생 16만명 부족으로 전국 대학의 1/3 수준인 100개교가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 중 96교가 지방대, 51교가 지방전문대로 예상('13학년도 기준)

◆ 학생 인터뷰('15.1.5. 청년에게 희망을 일자리 프로젝트 1부(KBS 시사기획 창))

- ○○대학교('15년 구조개혁 평가 D등급) "등록금을 400만원 가까이 내지만 강의실을 학생들이 직접 청소하고, 책상·실험실 등이 초등학생이 쓸 만한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고 개인 실험도구를 그냥 사용하기도 함"

- △△대학교('15년 구조개혁 평가 E등급) "장학금 지원이 전혀 없고 등록금을 그대로 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며 수험생들의 입학할 말리고 싶음"



< □□대학교 기숙사 >



< ◇◇대학교 전경 >

○ (추진 방안) 지방대, 전문대라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정원감축을 권고하고 하위 등급은 재정지원(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15.8.31, 교육부 차관 브리핑)

○ (안내 사항)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고 한계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14년 4월, 김희정 의원)

※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15년 10월, 안홍준 의원)

-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매년 수시모집 이전에(8월말 기준) 대학별 정부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보도자료 메뉴(검색어 : 대학 구조개혁)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안내

누리과정

(자료제공: 교육부 홍보담당관 ☎ 044-203-6822)

누리과정이란?

- ☑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입니다.
- ☑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만 3~5세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를 이용하든 생애 첫 출발선에서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01 누리과정 지원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입니다.

⇒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02 국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도교육감의 의지가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편성 가능합니다.

03 우리 아이들의 교육·보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아이들의 교육·보육 권리를 지키는 것이 교육감의 핵심 책무입니다.

정부3.0 국민을 향한 즐거운 변화

(자료제공: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 ☎ 02-2100-3416)



국민을 향한 즐거운 변화

정부 3.0

국민 생활 맞춤형 서비스 정부3.0으로 국민 행복을 키워갑니다

공공장비를 적극 공개·개발하고 (투명한 정부)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하며 (유능한 정부)

국민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정부)



대학 구조개혁 추진

(자료제공: 교육부 대학평가과 ☎ 044-203-6809)

◆ 대학 구조개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에 보다 많은 정원을, 학생에게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교육을, 지역사회에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을 제공하겠습니다.

○ (배경) 저출산 및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전문대학의 학생 미충원 및 교육 부실화, 폐교 위기로 인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2023년까지 학생 16만명 부족으로 전국 대학의 1/3 수준인 100개교가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 중 96교가 지방대, 51교가 지방전문대로 예상('13학년도 기준)

◆ 학생 인터뷰('15.1.5. 청년에게 희망을 일자리 프로젝트 1부(KBS 시사기획 창))

- ○○대학교('15년 구조개혁 평가 D등급) "등록금을 400만원 가까이 내지만 강의실을 학생들이 직접 청소하고, 책상·실험실 등이 초등학생이 쓸 만한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고 개진 실험도구를 그냥 사용하기도 함"

- △△대학교('15년 구조개혁 평가 E등급) "장학금 지원이 전혀 없고 등록금을 그대로 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며 수험생들의 입학할 말리고 싶음"



< □□대학교 기숙사 >



< ◇◇대학교 전경 >

○ (추진 방안) 지방대, 전문대라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정원감축을 권고하고 하위 등급은 재정지원(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15.8.31, 교육부 차관 브리핑)

○ (안내 사항)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고 한계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14년 4월, 김희정 의원)
 ※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15년 10월, 안홍준 의원)

-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매년 수시모집 이전에(8월말 기준) 대학별 정부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보도자료 메뉴(검색어 : 대학 구조개혁)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안내

누리과정

(자료제공: 교육부 홍보담당관 ☎ 044-203-6822)

누리과정이란?

- ☑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입니다.
- ☑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만 3~5세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를 이용하든 생애 첫 출발선에서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01 누리과정 지원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입니다.

⇒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02 국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도교육감의 의지가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편성 가능합니다.

03 우리 아이들의 교육·보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아이들의 교육·보육 권리를 지키는 것이 교육감의 핵심 책무입니다.

신학기 새로운 변화에 대한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돕기

(자료제공: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044-203-6874)

신학기에는 설렘과 긴장이 함께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변화가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번 회보에서는 부모님께 자녀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 신체적 건강을 챙겨주세요. 새로운 환경은 외부 자극에 예민한 반응과 긴장을 불러오므로 적절한 운동, 영양 섭취, 수면과 휴식으로 긴장을 해소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교생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하십시오.

자녀가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는지,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담임선생님과 소통해 주세요.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 자녀의 특성, 학교에서의 모습 등에 대해 선생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 주세요.



“학교생활이 많이 힘들구나”, “네가 힘들어하니깐 엄마 마음이 아프구나”라는 위로와 공감의 말은 힘이 됩니다. 또한 “이제 엄마가 알았으니까 안심해도 돼”, “지금 힘들지만,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거야”라는 안심과 도움을 약속하는 진심어린 격려의 말이 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학교가기를 거부하거나 신체적인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거나 지나치게 무기력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울증이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자료제공: 통일부 이산가족과 ☎ 1644-2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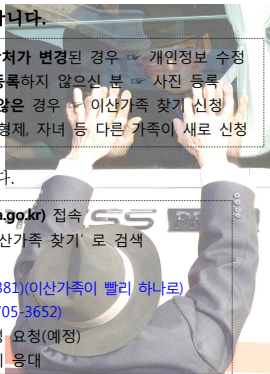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2016년 3~6월(3개월)간 국내 거주하는 남북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래 분들은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하셨으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개인정보 수정
- ▶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하셨으나 사진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 ⇒ 사진 등록
- ▶ 북한에 가족이 있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산가족 찾기 신청
- ▶ 기존 신청자가 신청 후 사망하신 경우 ⇒ 형제, 자녀 등 다른 가족이 새로 신청

○ 편하신 방법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이산가족 찾기 홈페이지(reunion.unikorea.go.kr) 접속
 - '네이버' 혹은 '다음' 검색창에서 '남북이산가족 찾기' 로 검색
- ▶ 전화
 - 통일부 이산가족 콜센터 (☎ 02-1644-2381)(이산가족이 빨리 하나로)
 -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콜센터(☎ 02-3705-3652)
- ▶ 지역별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정보수정 요청(예정)
- ▶ 조사기간 중 전문조사원의 전화나 방문에 응대



6·25전사자 유해발굴, 귀하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대외협력과 ☎02-811-6567)

2016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12만4천여 호국영웅들
그들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영웅의 명예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발굴기간 : '16.3월~11월(8월은 우기로 인한 정비)

◆ 발굴지역 : 철원, 파주, 홍천, 고성, 철곡, 광주 등 85개 지역

◆ 투입인력 : 34개 사(여)단 약 10만여명

국민과 함께 하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호국영웅의 소재를 제보해 주세요!

6·25 전쟁 당시 전사자 직립 매장, 폭격 또는 돌은 사살이 있었다면 허위 발미 제보해주세요!
(제보전화 1577-5625)

유해발굴시 포상금 지급

쉽고 빠른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가까운 보건소·보건지소, 군병원 방문 시료 채취
▶ 고령자(만 70 이상)
전학신청서(1577-5625) 유전자 시료채취 키트 발송
현역장병은 소속부대 인사담당자에게 신청 **▶ 무료키트 제공**

■ 문의전화 **1577-5625 (오! 6·25)** ■

대한민국 국방부
함께하는 내일가장

국방 헬프콜

국방없이 모든전화로 1303

24시간 365일!

병영생활고충상담 전문상담관 수신
• 복무부적응, 인권침해,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상담 등

군범죄·성폭력 신고/상담 전문상담관 수신
• 군내 성관련 인권침해 신고 및 피해자 상담
• 군인/군무원이 관련된 각종 범죄, 군과 관련된 민간인 범죄
• 병영내막·패용/인권침해/군기문란행위/각종 사고유령요인
• 기타 군과 관련된 부정부패 및 사건/사고 처리에 대한 문의 등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전문상담관 수신
• 방위사업, 군년, 부정군수품 거래 및 유통관련 범죄 등
* **군관련 범죄신고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군전화, 공중전화,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든 전화로 신고/상담 가능
• 사이버신고/상담
- 인터넷: 부대별 홈페이지 "국방헬프콜" 메뉴
- 인터넷/모바일: 검색창에 "국방헬프콜" 입력

(사)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민생물류조사본부
민생물류조사본부

3월은 부정군수품 집중 계몽·홍보·단속의 달입니다. 부정군수품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기획처 계획과 ☎ 02-748-1880)

1. 부정군수품이란 무엇인가요?

- 부정유통 및 불법유통되는 한·미군 군수품 일체, 불법 제조·판매되는 군복류 및 군용장구, 사제 군복류

2. 단속대상(형사처벌) 품목은 무엇인가요?

- 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차량/장비, 군용식량, 유류 및 부속품, 기타 군용품
- (유사)군복류 : 전투복, 전투화, 계급장,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등
- 군용장구류 : 권총집, 구급대, 탄일대, 요대, 방탄헬멧, 반합, 수통, 모포 등

3. 단속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총기, 탄약, 폭발물 관련 범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군용차량, 장구류, 식량, 피복 등 군용품 범죄 :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
- (유사)군복/군용장구 불법제조·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유사)군복 및 군용장구 불법착용·사용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4. 자진 신고/반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부정군수품 소지·보관자가 자진 신고/반납한 경우, 가능한 선처 조치

5.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 국방헬프콜센터 : 국방없이 1303번(모든 전화로 신고/상담 가능: 군·공중·일반·휴대전화)
- 국방부조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ndcc.mil.kr>) 「신고 및 제보」 클릭!
- 국방부 부정군수품단속 중앙위원회 : 02-748-1882, 1885~7
- 가까운 헌병대, 경찰관서
- ※ 신고자는 심의후 신고 보상금 지급 / 신고자 신원 비밀 보장

군용품, (유사)군복류, 군용장구를 불법반출·제조·판매·착용(유대)하는 것은 범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방부 부정군수품단속 중앙위원회(국방부조사본부)

『2016년도 희망키움통장 I, II 및 내일키움통장』 신규대상자 모집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2, 3077)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을 위하여 2016년도 희망키움통장 I, II 및 내일키움통장 신규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기간: '16.3.4(금) ~ 3.10(목), 7일간

○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 I: 총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애의료수급가구
- 희망키움통장 II: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1개월 이상 성실참여자
* 기타 자세한 통장별 가입 가능 소득 상·하한 기준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희망키움통장 I: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평균 33만원 (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550만원+이자)
- 희망키움통장 II: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정액 10만원 (3년 만기 시 총액 최대 720만원+이자)
- 내일키움통장: 본인 저축액 월 5 또는 10만원 정부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 별 1:1, 1:0.5, 1:0.3 차등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만원)

○ 신청·접수처:

- 희망키움통장 I, II: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내일키움통장: 주소지 지역자활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 (<http://www.hopegrowing.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별첨 **통장별 가입 가능 소득 상·하한 기준**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저소득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드립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1, 3392)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1, 3392)

① 희망키움통장 I

(단위: 원)

가구 구분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기준: 근로·사업소득)	~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근로·사업소득)
1인 가구	389,959	~	2,147,411
2인 가구	663,985	~	2,147,411
3인 가구	858,965	~	2,147,411
4인 가구	1,053,944	~	2,634,860
5인 가구	1,248,924	~	3,122,309
6인 가구	1,443,904	~	3,609,759

* 유지기준 소득상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상한 초과 시 통장이 해지됩니다.(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특별중도해지)

② 희망키움통장 II

(단위: 원)

가구 구분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기준: 근로·사업소득)	~	가입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소득인정액)	~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근로·사업소득)
1인 가구	487,449	~	812,416	~	2,147,411
2인 가구	829,981	~	1,383,302	~	2,147,411
3인 가구	1,073,706	~	1,789,510	~	2,147,411
4인 가구	1,317,430	~	2,195,717	~	2,634,860
5인 가구	1,561,155	~	2,601,925	~	3,122,309
6인 가구	1,804,880	~	3,008,133	~	3,609,759

* 유지기준 소득상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정기소득조사 등을 통해 소득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 통장이 해지됩니다.(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특별중도해지)

고위험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입원진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임신 20주 이후에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증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 '1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기준 4,980천원
- 지원내용: 입원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300만원 한도 내)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세한 지원 기준·범위·내용 등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는 거주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
 - * '16년 기준 중위소득 40% : 3인 가구 기준 1,432천원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천원, 최대 1년간)
-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월 8만6천원, 최대 1년간)
-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하므로, 영아 출생 후 빨리 신청할수록 지원기간이 길어짐

※ 상세한 지원 기준·내용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는 거주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드립니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4741)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전월세 지원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단위: 만명/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내용	중위소득 43%	70	119	154	189	224	259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기타 신청처는 별도 신청 필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콜센터 129) 홈페이지 www.myhome.go.kr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자료제공: 국민안전처 ☎ 02-2100-0028)

2016 국가안전대진단
 함께하는 안전점검! 함께하는 안전강국!

국가안전대진단은 행정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안전관리 핵심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선제적인 예방활동입니다.

안전신고 · 제안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생활 속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소들은 언제든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고, 안전제도·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은 안전신문고 웹 (www.safepeople.go.kr) 에서 자유롭게 제안해주세요!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02-2110-6527)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2016.2.1. ~ 4.30.
- 신고대상 전국 국민 없이 ☎110
- 신고접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 홈페이지 : www.acrc.go.kr
 -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 팩스 번호 : (02)2110-0678
 - * 우편·방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
 -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부정수급 10대 분야
 -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급여·아르바이트 보조금 등) 부정수급
 -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 ④ 교육분야(버스보조금·유기보조금 등) 부정수급
 -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 ⑦ 문화예술분야(문화예술진흥사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 ⑧ 노동분야(취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처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부패신고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 044-200-7694)

부패·공익 침해신고
1398-110



부패신고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비밀보장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일상고발) 또는 110
- 인터넷 www.acrc.go.kr
- 부패·공익신고 앱으로도 신고 가능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투명·신속·신뢰



공익침해해위 신고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 044-200-7757)

국민결함 110
정부민원 110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안심하세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 보호 조치 : 신변보호, 신분보장, 신분상 불이익차지 금지
- ✓ 보상 지원 : 최고 1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법·징계의 감면

공익침해하나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자료, 이익을 침해하여, 고충 유발 시료, 폐기물 불법투기, 기타 기타 기타 L.P.C. 가역행위 등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투명·신속·신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 ☎ 02-2110-6508)

국민결함 110 정부민원 110

전국 어디서나
정부 대표 전화 **110**

"110 번호하나만 기억하시면,
정부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충 민원 상담
- 장애인 복지
- 각종 통계문의
- 지방세 상담
- 민원24 관련 상담
- 제도개선 제안
- 행정심판
-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
- 부패·공익침해 신고 상담
- 식품안전관련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투명·신속·신뢰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044-200-7814)

"국민의 행복찾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행정심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행정심판 포털 (www.simpan.go.kr)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행정심판 대상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 영입정자·과징금·부담금 부과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등

전화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일하는 즐거움 쌓이는 행복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료제공: 국세청 세정홍보과 ☎ 044-204-316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요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 요건)
 -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도 만 50세 이상인 경우

- (총소득 요건)

- 2015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혼별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주택·재산 요건)

- 2015. 6. 1. 현재 가구원 모두를 기준으로 1주택 이하(무주택 포함)이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

- 신청기간 등

- 신청기간: 2016. 5. 1. ~ 5. 31.까지
- 신청방법: ARS, 인터넷 홈택스 및 홈택스앱, 서면 신청
- 지급시기: 신청요건 심사 후 9. 30.까지
- 지급금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하여 산정한 장려금에서 감액요인을 반영 결정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2017년 재학생(국외) 입영신청

(자료제공: 병무민원상담소 ☎ 042-611-4023)



[2017년 재학생(국외) 입영신청] 안내



'17년도 재학생(국외) 입영신청 일정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상 재학/국외체재 사유로 입영연기된 사람 중 2017년 현역병 입영 희망자

방법 선착순 접수 (공인인증서 필요)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입영 > 재학생(국외) 입영신청 > 신청 > 입영희망시기조회

기간 3회로 나누어 접수 (3월, 6월, 9월)

3월 접수: '16.3.2.10:00~ * 6월, 9월 접수일정은 추후 공지

각 지역별 접수 시작일시가 다르니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필요
: 병무청 홈페이지 우측 상단 > 지방병무청 바로가기 > 공지사항

결정 '16년 12월 중 입영일자 / 부대 결정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 입영일자/부대조회에서 확인 가능



'16~'17년도 현역병 입영희망자..이런 설계가 필요해요

(자료제공: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3)

○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70% 이상이 대학생으로 복학 가능한 특정시기(1월~5월)에 입영을 원하는 출립 현상이 발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모든 사람이 입영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히고, 후반기에는 입영이 가능하므로 학사일정 및 진로설계에 맞추어 입영 신청을 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휴학을 한다고 입영일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군 입대 휴학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 '16년~'17년 현역병 입영희망자의 입영신청 방법 및 일정 안내

구분	입영일자 본인선택(선착순)	재학생입영원
	'16년도 입영 희망자	'17년도 입영 희망자
대상	모든 현역입영대상자 · 국외연기자, 고향자, 별도대기자 등 포함	○ 재학중인 학생 (연기자 포함) ○ 국외연기자
신청시기	수시 *16.2.16 최초접수, 격주 화요일 접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전년도 3월~11월 (다음연도 입영 희망일 선택) · '17년도 입영원 접수 - '16.3.2일부터 청별 접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인원	추가공석 발생 인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계획인원의 70% (17년 70,000명)
입영일자 (합격자) 결정방법	선착순 접수와 동시 결정	적성, 희망일 등 감안 입영일자 전산 결정 (16년 12월중)

【접수방법(채널)】

○ 재학생입영원 및 입영일자 본인선택

-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군입영 → 현역/상군 민원신청

○ 각 군 모집병

- 병무청홈페이지 → 군지원(모병)안내 → 군지원서비스(민원/조회) → 실시간 지원현황, 지원가능분야 검색 등 활용

인터넷사기·스미싱 피해예방은 『경찰청 사이버캅(앱)』을 이용하세요!!!

(자료제공: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안전서비스팀 ☎ 02-3150-0247)

경찰청 사이버캅(앱)

❖ 내가 거래한 인터넷 물품거래 상대방이 사기꾼일까? 아닐까?

❖ 내 휴대전화 문자나 카톡에 수신된 URL문자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을까?

❖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경찰청 사이버캅(앱)』이 해결해 드립니다.



인터넷사기 조회 (전화/계좌번호) ①, 전화, 메시지 수신시 신고이력 알림 ②, 악성URL 스미싱 문자메시지 탐지 ③, 행정자치부 사칭 스미싱 사이트 ④, 신종 피해경보와 예방수칙 제공 ⑤

❖ 인터넷 물품거래 상대방의 전화·계좌번호가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사기꾼인지 금방 알겠죠!!!~^^) ①, ②)

❖ 내 휴대전화 문자·카톡을 통해 수신된 악성코드URL을 탐지·차단하여 소액결제 등 스미싱 피해예방 기능(③, ④)

❖ 각종 신종범죄에 대한 피해경보, 예방수칙 등 정보 제공(⑤)
❖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다운로드는 구글플레이(Google Play), T스토어(T store), 애플스토어에서



봄철 산불예방 안내 -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

(자료제공: 산림청 산불방지과 ☎ 042-481-4255-6)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
-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등은 **산불의 중요한 원인**
* '15년 185건의 소각산불 발생(산불 원인의 30% 차지)



논·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52명 사상
⇒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사
* 사망(38명)의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자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낮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전조치 후 실시



○ 새해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권특화 화상·채팅 상담 안내

(자료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02-2125-9736)

국가인권위원회가 상담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장애인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인권특화 화상·채팅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 서비스 대상: 화상(수화)상담 및 채팅상담

1) 화상상담 안내

- 대상: 청각·언어장애인
- 화상상담: 매주 월·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 씨트크를 통한 수화상담: 070-7497-7331
- 영상중계서비스(107): 평일 09:00~ 18:00
- 손말이음센터의 영상중계서비스(107)를 이용하실 경우 위원회 (02-2125-9736)로 전화연결요청하면 상담 가능

2) 채팅상담 안내

- 대상: 모두
- 채팅상담: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이용방법

- 1) 인터넷 이용: www.humanrights.go.kr(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접속후 화상상담 클릭
- 2) 모바일 앱 이용: [Playstore](#)(또는 [Appstore](#))에서 「331 인권상담」 앱 다운로드, 접속 후 화상상담 또는 채팅상담 클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을 무료로 받으세요!

(자료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지원팀 ☎ 02-2110-1296)

□ 시청자미디어센터는 ?

-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총괄 운영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방송제작 시설·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청자 참여 지원 시설입니다.
- 시청자미디어센터는 현재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등 6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울산센터가 개관될 예정입니다.

□ 다양한 미디어교육과 방송 제작 시설·장비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방송제작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 촬영·편집 등 방송 제작을 위한 수준별 콘텐츠 제작 교육
-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미디어 거점학교 운영 등 미디어 꿈나무 양성 지원

○ 시청자 방송 참여 지원

- 시청자가 직접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방송제작 시설·장비 무료 대여
- 시민제작단 운영, 공모전 개최 등 시청자의 창작 독려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외계층 방송접근 지원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산골학교, 섬마을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체험, 상영회 등 개최
- 장애인미디어축제, 실버영상제 등 미디어를 통한 소외계층의 사회적 소통 지원

미디어교육 수강절차		장비·시설 이용 절차	
회원가입 홈페이지	▶ 수강신청 홈페이지	정회원 교육 수료	▶ 시설·장비 예약
수강확정 신청서 심사	▶ 교육수강	시설·장비 활용	▶ 시설·장비 반납

시청자미디어재단 권역별 안내도



◎ 지역 센터 현황

구분	부산센터	광주센터	강원센터	대전센터	인천센터	서울센터	울산센터
개관일	'05년 11월	'07년 6월	'14년 7월	'14년 7월	'14년 8월	'15년 6월	'16년 예정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광주 서구	강원 춘천시	대전 유성구	인천 연수구	서울 성북구	울산 북구

* 휴관일: 법정공휴일 / 이용시간: 평일 09시~22시, 주말 08시~18시

◎ 주요 시설 및 장비



시청자미디어재단(서울 영등포구) ☎ 02-6900-8347 / 홈페이지 www.kcmf.or.kr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051-749-9500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 062-650-0300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 033-240-2345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 042-865-3700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 032-722-7900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 02-922-9970

2016년 4월의 독립운동가

석농 오영선 선생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무총장 등 역임



오영선 선생
1886.4.13. - 1939.3.10.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임시정부 법무총장을 지낸 석농 오영선 선생을 2016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선생은 경기도 고양 출신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휘 선생의 사위이다. 어려서 배재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우며 국제정세에 눈을 뗐으며, 대한제국의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07년 8월 일제의 군대 강제 해산으로 대한제국 장교의 꿈을 접어야 했다. 이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으나 배일사상이 문제가 되어 퇴학 처분을 받았다. 고국으로 돌아 온 선생은 1909년 이동휘의 초청을 받아 캐나다 그리어슨 선교사가 함북 성진군에 세운 협신중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면서 소위 '이동휘의 교육생'이 되었다.

일제의 강제 병합 이후 북간도로 옮긴 오영선은 간민교육회가 1911년 3월 연결현 국자가에 세운 광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1914년 2월에는 간민회 의원에 선출되어 간도 한인의 권익 옹호에 적극 나섰다.

오영선은 1914년 독립군 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이동휘가 길림성 나자구에 세운 대전학교의 교관으로 활동하였다. 일제의 탄압으로 대전학교가 폐쇄되자 1917년 1월 이동휘와 훈춘의 대항구로 옮겨 북일중학교를 설립, 교사로 재직하면서 항일 구국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후 선생은 북간도와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하여 교육계몽과 무관양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선생이 교육한 많은 학생들이 이후 간도와 연해주에서 항일무장 투쟁을 이끌었다.

1920년 4월 일본군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을 기습 공격하여 한인 주민 상당수를 학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오영선은 연해주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이동휘와 함께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로 옮겼다. 선생은 1920년 임시의정원 경기도의원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원 비서장에 임명되어 국무총리 이동휘의 활동을 보좌했다.

이 무렵 임시정부에서는 개조파와 창조파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임시정부 개혁 논의가 한창이었다. 오영선은 1922년 『독립신문』에 「신년의 신각오」라는 글을 기고하여 “우리는 독립운동가라는 의미 앞에서는 다 동지”라고 주장하며 화합할 것을 역설하였다.

오영선은 국민대표회 지지파와 정부 옹호파를 중재하여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결렬되자 독립운동계의 통일과 임시정부 개혁을 위한 정국쇄신운동을 벌였다. 1924년 12월 박은식 내각이 들어서자 오영선은 법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선생은 정국쇄신을 위한 헌법을 개정하고 간도지역 정의·신민·참의 3부를 설득해 결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영선은 국무령 김구 체제에서 군무장에, 이동녕 체제에서 외무장과 군무장에 임명되어 민족유일당 건설을 위하여 힘썼다.

오영선은 임시정부 외곽단체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24년 대한교민단 의사회 학무위원에 선임되어 교민 자제교육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1922년 대한직업사회 이사장과 1925년 회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또한, 안창호와 함께 임시정부경제후원회를 조직하여 임시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오영선은 임시정부 국무원으로서 임시정부의 개혁과 대동단결을 주장하다 1939년 상해에서 지병으로 순국하였다. ☐

【첨부】 관련 사진



석농 오영선 선생
1886. 4. 13. ~ 1939. 3. 10.
건국훈장 독립장(1990년)



오영선 선생 가족사진 ○유족
오영선 선생은 부부(사생)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휘의 둘째 사위이다. 부인인 이영순은 1939년 부친 이동휘와 함께 북간도로 망명한 이후 영동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긴 후에는 신한촌의 삼일여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독립투진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4월의 6·25전쟁영웅 그리앙끄라이 아따난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044-202-5720)

◆ 우리는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는 '그리앙끄라이 아따난' 태국 중령을 4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태국은 한국전쟁시 한국을 지원해 준 아시아 최초국가로, 아따난 중령은 태국 최초의 파병군인이었음
- 서울-개성 보급로 방어작전, 수원 철수작전, 상주-문경 주보급로 경비, 춘천-화천지구 진격전등에서 태국군을 용맹스럽게 이끌어 임무를 완수함

6·25전쟁이 발발하자, 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UN군의 일원으로서 한국에 파병한다는 의견을 모았고, 해군 프리깃함 2척과 수송선 1척, 1개 공군 수송기 편대와 항공 의무대와 함께 파병부대의 대대장으로 그리앙끄라이 아따난 중령을 임명하였다. 그리앙끄라이 아따난 중령이 이끄는 태국 지상군 1개 대대 병력은 16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7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태국군은 UN군의 일원으로서 평양-수원 철수작전 및 상주-문경 주보급로 경비작전, 춘천-화천지구 진격전 등 크고 작은 전투에서 혹한과 싸우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냈다.

마나면 타국 땅에서 인류의 존엄한 가치인 자유를 수호하고자 목숨을 바쳤던 그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파병기간 동안, 아따난 중령은 용맹스럽고 비범하게 태국군을 이끌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들은 전장의 '리틀 타이거'로 불리며 용맹을 떨친다. 임무가 끝난 후 아따난은 태국으로 귀국할 때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을 받았다.



그리앙끄라이 아따난
(1913.2.9.~1972.)
상훈 : 미국동성무공훈장



전쟁기념관 보도자료

2015년 3월 4일 배포 www.warmemo.or.kr
 총 1쪽 (사진포함) 담당: 교육홍보부 홍보팀 윤선영
 전화: 02)709-3109 Fax: 02)709-3116 핸드폰: 010-9967-8501
 이메일: yoon14@warmemo.or.kr

4월의 호국인물 김해수 경감

(1924. 9. 6 ~ 1950. 7. 8)

전쟁기념관(관장 이영계)은 6·25전쟁 당시 영월발전소 탈환작전을 이끈 47인 결사대의 영웅 김해수(金海洙) 경감을 2016년 '4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김해수 경감은 1924년 강원도 통천군에서 태어났다. 1948년 서울 경찰전문학교 경찰간부후보생 3기로 입교하면서 경찰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강원도에서 경위로 재직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투경찰

※이달의 호국인물사전 없음 (▲영월 호국경찰전적비)

제8대에 편성되어 영월에서 북한군과 맞섰다.

7월 1일 경, 적의 대대적 공세에 강원도 내 경찰병력 대부분은 남하했지만 강원도 비상경비사령부는 전경 제8대대와 홍천, 인제의 병력 100여 명으로 영월 방어부대를 편성, 영월지역을 사수하기로 결의했다. 영월은 10만 kw의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와 중석광산이 위치해있고, 탄광지대에 인접해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7월 2일부터 영월지역은 수차례의 공방전이 계속되었고, 적의 대규모 공세에 영월 지역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1중대장 김해수 경감은 47명의 결사대를 지휘하여 8일 녹전리 송현치(松峴峙)에서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육탄전까지 벌인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적 73명을 사살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나 안타깝게도 김 경감은 적이 발사한 박격포탄의 파편이 관통해 그 자리에서 전사했다.

부족한 전력과 화력에도 불구하고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김 경감과 순국경찰들을 기리고자 매년 7월 8일 전투가 벌어진 영월군 녹전리에서 '녹전전투 추념제전'이 열리고 있다.

4월 7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족과 경찰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